

#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 T. 714-732-1484 / 발행인: 김홍식 / 편집인: 나삼진



이사장 김홍식 장로  
(내과외사, 수필가)

## 바위가 오히려 가볍게 느껴질 때

40세 이후부터 인간의 신체기능이 쇠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근육량도 해마다 1-2% 감소한다. 신체 노화로 근육세포의 수가 줄고 충분하지 못한 식사와 운동 부족이 겹치면 근육은 급속히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로 운동신경이 둔화되어 보행 장애나 낙상 위험이 높아지며 골절의 위험도 커진다. 근육이 줄어들수록 포도당 사용량도 줄어들어 당뇨병과 동맥경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모든 운동이 골격근, 심장근육, 내장 근육에 다 도움이 되지만, 걷기만 해서는 상체나 허리의 골격근 운동에 부족하다.

필자도 운동부족을 느껴 피트니스 센터에 부지런히 들러 무리하지 않게 운동을 하고 있다. 젊은 사람이 많지만 중년, 노년의 남녀노소들, 또 전동차를 타고 도우미와 같이 운동하러 오는 분도 있다. 땀을 흘리며 뿜어내는 에너지는 살아있다. 센터의 2층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아래층을 내려다보면 역기를 들거나, 각종 기구 앞에서 설 새 없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남녀들이 보인다. 인체의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상상해 보기도 한다. 무슨 잘못들을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무거움을 들어 올리고 당기고 있는 걸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는 코린토스의 왕인데 바람의 신인 아이올로스와 그리스인의 시조인 헬렌 사이에서 태어났다. 호머에 따르면 시지프스는 인간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우연히 제우스가 강의 신 아소포스의 딸을 납치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비밀을 누설하게 된다. 신들의 비밀을 누설하고

신들에게 도전하는 죄로 우여곡절 끝에 시지프스는 형벌을 받게 된다. 시지프스는 지하세계의 어떤 높은 산기슭에서 커다란 둥근 바위를 그 산 정상까지 굴러 올려 놓아야 한다. 시지프스가 어렵게 바위를 정상에 올려놓자마자 바위는 다시 산 밑으로 저절로 굴러 떨어진다. 그러면 시지프스는 터벅터벅 산 밑으로 내려와 다시 바위를 정상으로 굴러 올려야 한다. 그의 형벌은 절대 끝이 나지 않은 채 영원히 계속된다.

소설가 카뮈는 현대의 부조리, 현대인의 삶을 시지프스의 신화로 비유하였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현대인들은 자칫 거대한 자본주의의 부속품처럼 느껴질 수 있다. 죽음을 통해 부조리에서 도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죽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의 성실한 매일의 삶이 부조리(부당한 형벌)를 이기는 것이라 했다. 위의 이야기처럼 인간의 성실성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과 희망이 있다.

세계 곳곳에서 균형 있는 의료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조리를 겪고 있다.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프리카는 더욱 심하다. 뜻있는 분들이 돕지만 많은 선교, 자선 병원들이 심각한 운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다. 물질적 도움과 직접 몸으로 도와야 되는 선교, 자선병원의 운영은 커다란 바위를 밀어 올리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무거운 일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실 것과 도움 받고 희망을 얻게 될 환자들을 생각하면 그 짐이 오히려 가볍게 느껴진다.

# 탄자니아 홍성욱 FM 인터뷰



모두 안녕하세요?

이번 소식은 아프리카에서 항상 힘써주시는 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탄자니아 홍성욱 FM입니다.

홍성욱 FM은 2022년 탄자니아의 다레살람이라는 도시의 무힘빌리 국립병원 음롱간질라 캠퍼스 컨설팅 사업 현장을 맡아서 열심히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미래는 아프리카인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도전에 공감하여 이와 같은 계기를 만들기 위해 항상 연을 이어가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Q1.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탄자니아 다레살람이라는 도시에 파견되어 KOFIH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으로 무힘빌리 국립병원 음롱간질라 캠퍼스 컨설팅사업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욱 필드매니저입니다.

저는 2008년 12월 케냐를 방문했던 일이 계기가 되어 아프리카와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부터는 아프리카미래재단 소속으로 탄자니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Q2. 아프리카에 가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2008년 학교 선배의 추천으로 한 NGO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일이 계기가 되어 케냐 나이로비에서 진행되는 대학생 컨퍼런스를 참석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케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미래는 아프리카인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도전에 많이 공감하게 되었고, 조금이나마 그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와의 연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케냐와 우간다를 거쳐 탄자니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Q3.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병원 컨설팅 사업은 KOFIH 사업으로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연구 병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과 자료 관리를 지원하고 있고, 본부에서는 NGO 봉사단원을 파견해 주셔서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의료 전문가 선생님들이 일정에 따라 2개월 혹은 4개월까지 단기간 체류하면서 현지 의료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실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4. 현지에서 지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 한가지만 나눠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은 작년 6월 코로나 감염이 발생해 기관 파견자들과 저희 가족까지 모두 힘들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국 본부에서도 출장 중이었고, 소아외과 선생님들이 단기간 파견 중인 상황이라 현장 책임자로 지원에 드렸어야 하는데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했었습니다.

다행히 봉사단원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했고,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들 모두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던 일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Q5. 현지 생활 중에서, 가장 좋은 점과 힘든 점 하나씩 알려주세요!**

다레살람에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바다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들이 바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은 정해져 있지만 언제든 해변을 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반면 힘든 점은 날씨가 1년 내내 무덥습니다. 바닷가이다 보니 습도도 높고 해도 따가워 한국과는 또 다른 무더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기도 하고, 실내 공간을 활용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Q6. 향후 계획을 나눠주세요!**

그동안 보건위생 분야의 해외사업 운영은 경험해 봤지만 병원과 관련된 부분은 새로운 영역이라 늘 배우는 마음입니다.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병원 운영진 뿐 아니라 저의 역량도 키워가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프리카 미래재단 지도부 개편

이사장 최재걸 교수, 대표 홍순철 교수 취임, 이사진도 보강해



최재걸 신임 이사장  
(아프리카미래재단)

사단법인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지난 3월 30일 서울 고려대학교의료원 청담 고영캠퍼스에서 신임 이사장·대표 및 임원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행사는 유관 단체장, 교계·의료계·사회복지학계 인사 및 정부와 기업 관계자·홍보대사 등 약 100명 내외의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재걸 이사장(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 교수)

취임과 홍순철 대표(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의 임명, 그리고 11명의 신임 임원 임명 및 위촉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김억 아프리카미래재단 사무총장의 사회와 이경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원목실 목사의 대표기도를 시작으로 황형택 새은혜교회 담임목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이후 조재철 외교부 본부대사, 용태순 국제보건의료학회 회장, 조대식 KCOC 사무총장 그리고 최동환 아프리카인사이트 이사

장이 축사를 전했다. 문인교회 박재천 목사의 축사와 아프리카미래재단 홍보대사인 송솔나무 플루티스트의 연주로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새롭게 취임한 최재걸 이사장과 홍순철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되고 이어진故 박상은 대표의 꿈을 이어받아 귀하고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은 2007년 외교부에 등록된 공익법인으로서 아프리카 25개국과 협력해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를 중점으로 다양한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다. 또한 매년 아프리카 비전트립을 떠나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취임한 신임 법인이사는 강범승 목사, 박양동 원장, 이병원 교수, 이흥후 교수, 최재욱 교수, 홍순철 교수, 신임감사는 이용식 회계사이고, 신임대표 홍순철 홍순철 교수와 함께 취임한 부대표는 김경희 교수(고려대), 김윤섭 교수(고려대), 송영현 대표(J&B)이며, 감경철 회장(CTS)과 양성일 교수가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 잠비아 선교 소식

허일봉 · 전미령 선교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소식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무척이나 놀랐을 막달라 마리아, 곧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뵈고 말할 수 없이 감격했을 그녀의 기쁨을 헤아리며,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됨을 깨닫습니다. 그 동안의 기쁨과 실망 또 감사가 섞인 소식을 전해 드리며 기도 부락을 드립니다.

### 1. 긴급 기도 부탁

4월 2일 은행 업무를 보러갔더니 10년 넘게 거래하던 은행이 중앙은행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며 문을 닫고 모든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3일에 중앙은행에 갔더니 2주 후에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할테니 기다리라는 답을 듣고 왔습니다. 3월 말에 병원 직원들의 월급을 각자의 계좌로 보냈는데, 생활비를 미처 인출하지 못한 병원 직원들은 황당한 상태입니다. 이 일이 속히 선하게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올해 우기에 비가 충분히 오지를 않아 정부에선 국가 재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 여파는 저희의 실제 생활에 여러모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수력발전애 의존한 전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해 하루에 8시간씩 정전이 시행되고 있어 병원과 대학은 큰 불편이 있습니다. 발전기 사용에도 한계가 있고 디젤 값을 충당하기가 부담이 되어 주요 기계들 사용할 때만 스위치를 켜고 있습니다. 카젬바 마을의 소작농들은 다 말라버린 옥수수를 보며 외상으로 구입한 씨앗과 비료 값을 어떻게 갚을지도 고민이고, 당장 올해 먹을 식량 걱정에 깊은 한숨들을 내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 2. 제라 국제 보건대학

올해 처음으로, 간호학과 8명, 임상학과 5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은 7월 학기 졸업생들과 합하여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받으려면 또 몇 달이 걸리므로 아직 취업을 알아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좋은 일자리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3월까지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전학생도 오면서 총 126명의 학생들이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로제타 홀 기념 장학회, 목회간호 선교협회, 고산 감리교회,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동산의료선교 복지회, 뉴욕그루터기 선교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후원하신 분들의 장학현금으로 94명에게 장학금을 후원했습니다. 학비 장학금을 받아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서 실습비 등을 못 내고 찢찢해는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3월 29일에는 간호학과 24년 입학생 가관식과 임상학과 입학생 White Gown식과 함께 우수재학생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학생 기숙사와 본관 건축을 계속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실습을 나갈 때 사용할 버스도 더 필요합니다. 대학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 3. 제라 국제 성경 교회

주님께서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세워 주셨습니다. 지난 3월 3일 은소푸 장로님의 장립식이 있었습니다. 제라의 젊은 학생들을 섬기며, 교회의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을 섬기고 목사님을 도와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기 위해 성경 공부반도 시작했고, 금요일 오후엔 줌으로 기도회도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주님 안에서 새로 거듭남을 체험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 4. 치소모 병원

1) 2월 말부터 또 몇 차례 도둑들이 와서 전기 구리선을 잘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해결될 동안은 전기를 쓸 수 없어 불편





했는데, 전기 공사에서도 연결만 하면 또 잘라가곤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공중에 구리 대신 다른 선을 깔았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래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감사했습니다.

2) 새로 문을 열 물리치료실과 치과는 장비 설치를 끝냈고 일할 직원들도 구했습니다. 의료협회에 통보한 후 검사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 회계부의 마아가렛 피리가 2월 10일에 예쁜 공주를 낳고 출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초산임에도 짧은 진통 끝에 순산하였는데, 저보고 손녀딸이 한 명 더 늘었다며 직원들이 농담을 했습니다.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도록 돌보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5. 카젬바 진료소와 유치원

유치원에도 새로이 30명의 어린이들이 입학했습니다. 이번엔 지난번 컨테이너로 온 아동복을 유니폼으로 입힐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70세가 되는 엘리나 간호사가 건강이 안 좋아 자주 입원,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신실한 동역자로 함께 사역해 온 그녀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 4. 그밖의 일들

1) 치소모센터의 아론 목사님이 이번에 잠비아성서공회(Bible Society of Zambia)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거리의 아이들 사역과 교회 사역, 치소모 병원 원목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잦은 잊어버림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5월이나 6월경에 작년에 실패한 우물을 다시 파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시원한 물줄기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4:12, 13)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도 주님께 힘을 구하며 사역 현장에서 서 있습니다. 계속하여 잠비아와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위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도로 하는 선교

이재훈 • 박재연 선교사



### 1. 거대 세포증 환자 에프라지 수술

원래 계획은 항암으로 종양 사이즈를 줄여 차후 수술을 진행하려 했으나, 항암이 효과가 없고 항암을 함에도 불구하고 종양이 줄어들지 않고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박준은 소아청소년과 교수 소견에 따라 수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술 일정: 4월 16일(화)- 이비인후과 백승국 교수, 성형외과 정재호 교수 협진

주요 검사 일정- 4월 9일 혈관 조영시술- 4월 15일(월) 혈관 조영시술  
치료진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에프라지 몸속에 더러운 암세포를 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여호와 라파 주님이 에프라지를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2. 코이카 “마다가스카르 지역병원 맞춤형 의사 양성을 위한 통합진료의 교육과정 개발 사업”

-4월 9-11일 안차라베바키나카라트라병원, 암바툴람피병원 훈련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 보건부에서 이타시병원장으로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들어온 외과 나발루나 선생님을 발령하여 다음 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4월 9일, 12일 프로젝트의 운영위원회가 모여 보건부와 상호협력 각서 갱신을 위한 중간평가를 위한 준비작업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4월 24일에 국립보건원에서 정부 부서 대표들 5명과 강사진 대표 2명, 교육생 대표 4명이 모여 평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평가하고 보고되어서 남은 기간 동안 더 나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2025년에 지속할 수 있도록 프로포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4월 15-17일까지 이타시병원과 붕굴라바병원 훈련이 있습니다. 먼저 이타시병원을 방문하여 새로운 병원장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담당하실 교육에 대한 안내와 교육생들을 부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어서 붕굴라바에서 7명의 교육생을 훈련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사 교육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잘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보건부 지도자들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함으로 충성되게 직무를 다하는자들이 되도록 주님 이들을 변화시켜주소서.

### 3. 컨테이너 받는 작업

지난 1월 말과 2월에 보낸 컨테이너들이 타마타브항구에 4월 8일 도착하였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슬람 공휴일이 발표되고 행정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컨테이너가 아직 포트에 있습니다. 5일 이후부터 포트 차지를 해야 합니다.

1차: 선교사님들 이사물품: 월요일에 차량을 포트 내에서 컨테이너에서 꺼내어 가치 측정용 사진을 찍어 코트디부 아드로 보내어 3일 후에나 답을 받고 그 평가에 따라 세금을 내고 나서야 포트에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웰인터내셔널에서 마장가국립병원과 치과대학에 기증할 물품들. 보건부 직원이 열심히 작업을 하여 화요일 쯤에 컨테이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보건부 직원, 세관원, 저희 담당자들이 함께 참관하에 썰을 열고 점검 후 짐을 나누어 타마타부에서 1000킬로미터쯤 떨어진 마장가로, 400여 킬로 떨어진 수도 타나로 물품이 운송되고 기증되어야 합니다.

-모든 행정작업에 주님 길을 놓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세관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주님의 물건들을 보호하시고 잘 운반되고 세팅되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게 하소서.





#### 4. 크리스찬 리더십을 실천하는 삶과 리더십의 건강을 위해.

-주님이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깨끗한 영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재훈 선교사에게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하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지도자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팀을 주님의 길로 잘 인도하여 가도록 도와주소서.

-박재연 선교사가 지난 주 금요일에 갑자기 견갑골 사이에 담이 걸려 아팠는데 일주일 내내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과 등 통증을 제거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더욱 주님 닮은 자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소서.

-팀원들이 한 마음을 품고 맡겨주신 직무를 지혜롭게 잘 감당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장태식, 유진아 선교사님이 4월 30일에 한국에서의 일정(아버님 간호)을 잘 마치고 마다가스카르로 잘 돌아오도록, 장연재 자매가 2 주간의 휴가로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잘 쉬고 재충전하여 4월 14일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홍기학, 배영희, 이리문, 김효순, 이호건 새롭게 마다가스카르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라가시기를 사랑하도록, 언어 능력을 더하여 주사 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리문, 김효순 선교사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이 잘 준비되도록.

#### 5. 미션센터 건축

-1차로 마장가국립병원 내에 다기능 건물(외부 교수요원 숙소, 세미나실, 중강의실 등)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토지 정리작업 진행 감사.

-건축 설계 최종도면을 완성하고 건축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이 잘 준비되어 허가를 잘 받도록. 한동대 손성찬 교수님과 NIBC 팀에게 지혜와 능력주시기를. 여호와이레 주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SBS 희망TV에서 촬영을 옵니다. 주님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 보여지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준비하는 모든 과정 주님 지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필요한 것을 모든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도 안타나나리부에 미션센터 건립을 하도록 선한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 주님이 가장 합당한 곳에 땅을 주시고 주님 계획하신 대로 센터가 설계되고 건축될 수 있도록 장인들을 붙여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셔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이루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다가스카르를 다 품고 열방을 품는 일에 맘껏 사용하소서.

-이전 땅 매매한 사람이 땅값 반환할 지불 능력이 있게하시고, 정의의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선하게 해결하여 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소서

#### 6. 부링게리교회 건축 준비를 위해

-2년 이상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린 부링게리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집을 세우게 되어 감사! 부링게리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4월 15일에 건축팀 조세와이 호건 학생이 함께 무른다바로 내려가 한달 동안 교회 건축할 예정. 먼길, 공사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호건 학생은 현지인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 고 박상은 원장, 국민훈장 석류장 추서

지난 4월 5일 보건 의료인의 자긍심을 북돋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이 열렸는데, 우리 재단 박상은 전 대표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추서했다. 박상은 대표는 아프리카미래재단 설립자이자 대표로 오래 봉사하였으며 안양샘병원 원장, 선교원장 등으로 일하면서 매년 소외된 이웃 천여 명에게 무료로 주말 진료를 하고,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예방 사업 등을 펼쳤던 공을 인정받아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50명 등과 함께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젊은 나이에 내한해 43년간 가난한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 환자를 치료하고 1928년 현 조선여자의학강습소(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을 설립하고 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전신인 동대문부인병원 설립한 공로로 로제타 홀 선교사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국민훈장은 대한민국 훈장 중 가장 품격이 높은 훈장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므로, 이날 시상식에는 부인 이해경 권사에게 전수되었는데, 아프리카미래재단 이사장 최재걸 교수, 신임 홍순철 대표, 김억 사무총장 등이 함께해 축하했다.

### 3월 9일, 피그미족 사역 보고와 기도회 개최

DR콩고 최관신 선교사의 선교보고회를 3월 9일 새벽 오렌지카운티살롬교회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 최관신 선교사는 피그미족 조산병원과 간호대학 사역을 보고하고, 기도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기도회에는 이사장 김홍식 장로,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 석소정 이사와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함께 참석하였는데 피그미족 선교에 감사하고, 함께 사역의 진전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최관신 선교사는 부냐키리에 설립한 피그미족의 간호대학의 학생들의 교육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 선교사는 학교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1학년 59명(간호학 52명, 조산학 7명), 2학년 65명(간호학 60명, 조산학 5명) 등 총 학생 수는 124명으로 간호학 112명, 조산학 12명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아틀란타지부, 피그미족 조산병원 숙소 건축 착수

아프리카미래재단 아틀란타지부(지부장: 이경호)에서는 피그미족을 위한 조산병원 설립과 간호대학 설립에 이어 그 후속조처로 새롭게 숙소 건축을 시작했다. 피그미족 사역을 위해 단기선교를 오는 이들과 상주 인력이 열악한 환경에서 머무를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을 고려하여 숙소동 건축을 착수하였는데,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틀란타지부에서는 이를 위해 6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3월 1차분을 송금해 공사가 착수되었고, 이경호 지부장이 9월 초 아프리카미래재단 선교사대회 후 현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 GMMA National Mission Conference 2024

6/28-6/29/2024

Bethel Church in Irvine, California

"For God So Love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 GMMA 의료선교대회 개최

#### 6월 28-29일 양일간, AFF 강의와 부스 참여

아프리카미래재단은 6월 28일부터 이틀간 어바인 베델교회에서 개최되는 GMMA 의료선교대회에 참여하여 워크숍 강의를 진행하고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사역을 소개하고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GMMA(Global Medical Missions Alliance)는 2006년 한미 의료선교회(Korean-American Missions Health Council) 이름으로 미주에 의료 선교회가 세워지면서 시작된 단체로, 많은 미주 의료인들이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각 지역교회와 연합하여 매 2년마다 전국적인 의료선교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선교대회는 'for God, So Loved...'를 주제로 진행되는데, 전체 연설과 특별연설에는 Christian Medical & Dental Society의 CEO인 마이크 처프(Mike Chupp) 박사가 담당하고, 프랜시스 찬(Francis Chan) 박사가 특별연설 강사로 나서는데, 의료 선교와 관련된 다양한 워크숍 강의를 준비되어 있으며, 100여 기관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그들의 사역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미래재단 미국법인은 이 선교대회에 참여하는 한국대표단을 환영하는 리셉션과 한국과 미국법인 이사회 합동 간담회를 대회 전날인 27일에 가질 예정이다.

### 2024년 첫 정기이사회 가져

아프리카미래재단 미국법인 이사회가 2024년 1월 11일 이사장 김홍식 장로 가정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아틀란타지부의 단자니아 연합대학 총장 내정자 김성수 총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미국 법인의 업무와 재정 상황이 보고되었고, 니제르 정혜림 선교사 남자학교 설립을 위해 8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 첫 AFF 선교대회 개최

아프리카미래재단 첫 선교대회가 오는 8월 30일부터 사흘간 짐바브웨 빅토리아 폴에서 개최된다. 아프리카미래재단 파송선교사들과 협력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사 케어 프로그램으로 준비되는 이 선교대회는 동부지역 열린문장로교회가 중심이 되고 미국 법인과 아틀란타 지부도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선교사대회는 사흘 동안 아프리카 각지에서 선교하는 아프리카 미래재단 소속 선교사들과 사역자들, 한국과 미국 AFF 대표단이 참여하는데, 대회 리셉션, 집회, 특강, 빅토리아 폭포 투어 등을 통해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지역별 선교사 친교와 사역을 듣고 앞으로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아프리카미래재단 홍보대사

## 송솔나무 초청, 후원의 밤 개최

### 6월 30일 홀러튼장로교회에서, CTS 합창단도 특별출연

아프리카미래재단 미국본부는 그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후원해 준 후원회원들에게 감사하고, 사역을 보고하는 2024년 후원의 밤을 6월 30일 오후 5시 홀러튼장로교회에서 갖기로 하고 준비중이다. 이 후원의 밤 행사는 GMMA 선교대회에 참여하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아프리카미래재단 홍보대사인 송솔나무의 연주회와 아프리카 선교 간증이 이루어지며, CTS 합창단이 협연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법인은 후원의 밤에 후원회원들을 초청하는 초청장을 5월 말에 보낼 예정인데,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을 가진 이웃을 함께 초청할 수 있다.

5시에 간단한 식사를 하고 6시부터 연주회를 겸한 후원의 밤을 갖는다.





## 아프리카의 기독교 신앙과 민속종교



나삼진 목사  
(Africa Future Fundation USA 사무총장)

내가 아프리카를 처음 방문한 것은 ‘희망봉 포럼’이 열렸던 2008년 여름 케이프타운이었다. 나를 초대한 김형규 선교사는 필리핀에서 선교사역을 하던 중 안식년을 맞아 남아공화국의 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논문을 마치면서 남아공화국 선교사로 20년간 선교를 하고 있었다. 그가 선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서남아프리카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새사람, 새 아프리카,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내걸었다.

그는 선교대회를 준비하던 중에 내가 사역하던 총회교육원을 방문하여 2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였지만 선교지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고민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교육 사역을 살펴보고 아프리카 선교에 교육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20년 이상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일하였고, 총회교육원은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인 기독교교육 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던 때였다. 그는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던 나에게 그의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기독교교육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도록 특강을 요청한 것이었다.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사역하는 이들은 선교대회에 초청받는 일이 거의 없는 편인데, 나는 그렇게 아프리카선교대회에 초청받은 것이었다.

김 선교사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높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종교와 결합되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 특강에서 회심과 신앙성숙에 대해 기독교교육적인 입장에서 전략을 나누었다. 나는 그때 무속신앙의 극복과 교육, 신앙생활의 기초 경건의 시간, 사람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제자훈련,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 교육, 이원론의 극복 등의 문제들을 다루었고, 선교사들과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유럽 식민지화는 지리상의 발견 이후 대항해 시대에 자국의 경제적인 영토를 확장하는 것에 혈안이었던 열강들의 욕망 때문이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지는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크게 양분되었고,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몇몇 나라를 지배했다. 지난 세기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시대가 종언을 고하였지만, 그동안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서북부는 프랑스, 동부와 남부는 영국이 대세를 이루었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영어와 프랑스

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그런 식민지 시대의 잔재이다. 남아공화국은 영국과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프리카민스를 만들었고, 그것이 남아공화국의 공용어가 되었다. 각 종족들이 종족 언어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오늘날 아프리카 각 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많은 편인데, 오랫동안 유럽 기독교 국가들의 지배를 받았던 아픈 역사에 기인한 것이다. 이슬람 세력이 강한 북부 아프리카와 달리 기독교 세력이 강한 중부와 남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60%를 상회하고 있고, 남아공화국은 기독교인 비율이 80%에 달한다. 그렇게 높은 기독교 인구와 달리,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의 기독교 신앙은 전통종교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는 기독교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선교사들이 선교와 교육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아프리카 선교에서의 과제는 교육, 의료, 지역사회 개발, 사회복지는 물론이지만, 현지인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깨닫고, 그것을 기독교적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기독교 문화와 전통에 익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교회의 규례에 따라 기독교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요 20:28)으로 고백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기독교 복음과 민속종교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사는 것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이러한 특이현상은 아프리카 특유의 혼합종교의 양상이다. 기독교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선교의 대상이 얼마나 많이, 또 자주 교회에 참석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 고백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는 것이다. 혼합종교는 복음보다 선교사가 전해주는 떡에만 관심을 갖게 만든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그 백성들이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쉽게 동화되면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갈 때, 그의 임종을 앞두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겔에 모아 언약을 체결하며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수 24:15)고 외쳤다.



아프리카를 꽃피우는 손길, 함께해 주세요.

**기관번호 (FEIN)**

- 83-4396614  
Africa Future Foundation
-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250)
- 714-732-1484 (미국) +82) 31-342-9182 (한국)
- ✉ aff@africaff.org 🌐 www.africaffusa.org
- 📺 📱 아프리카미래재단
- 📷 africafuturefoundation

**후원하는 방법**

- 수표 보내실 때
  - 받는 사람 : Africa Future Foundation
  - 주소 :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송금하실 때
  - 은행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251 2035 5776
  - Routing 번호 : 121000358
- 송금하실 때 (아틀란타지부 전용)
  - 은행 : Chase Bank
  - 계좌번호 : 462352621
  - Routing 번호 : 322271627

**선한 청지기들 2024. 1. 1-3. 31 / 재정 보고**

**헌금자 명단**

김은식 김응원 김인용 김홍식/김정미 나삼진 백형순 송은석/이원희 심선희/심재광 이경호 이승숙 이종남 이홍철 장국현 정진철 한창훈  
황길남/황로미

Kim Beckett, James Kim, Eun S. Kim, Michelle Lim, Woo/Min Sun Lim, Simon Paek, Michael Yang, John Yahng  
새벽이슬교회, 신약국(신사라), 예수소망교회, 오렌지카운티살롬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JJ물리치료(정정훈),  
Exalting Christ Church of Atlanta, Fidelity Charitable First Morningstar Foundation, Hope Family Medicine with Express Care,  
Livingstone Home Health, Priority Hospice, Kani Han, Steve Lee, Kenneth K. Lim, Suh Family Trust

\*혹시 이름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AFF 사무총장 (714-732-1484)에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 결산**

**수입부**

1월	37,740
2월	12,103.75
3월	4,265
	8,000
수입계	62,108.75

**지출부**

사업비/ 니제르 사업비	80,000	인건비	2,737.50
(재송금)		세금	644.00
선교사역비	15,168.38	CPA	150.00
지정헌금 송금	6,650	조의금	793.94
소계	101,818.38	송금수수료	315
행정비/회보 인쇄비	2,415.70	소계	7,192.75
우편료	136.61	지출합계	109,011.13

**수입부**

**아틀란타 지부**

1월	5,200
2월	4,300
3월	56,100
합계	65,600

**지출부**

**아틀란타 지부**

DR 콩고 숙소 건축비	30,000
조산병원 운영비	7,080
송금수수료	150
합계	37,230





#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 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www.africaffusa.org](http://www.africaffusa.org)

